

정치학적 탐구에서 ‘역사’와 ‘사상’: 한국 정치철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시론

홍태영 | 국방대학교

이 글에서는 주요하게 20세기 후반의 정치철학의 흐름들 가운데 역사(학)과의 관계 설정의 문제를 둘러싼 주요한 네 가지 흐름들, 즉 미국 시카고학파를 형성한 레오 스트라우스(Leo Strauss)의 정치철학, 스킨너(Quentin Skinner)를 중심으로 하는 영국 케임브리지 학파, 코젤렉(Reinhard Koselleck)을 중심으로 하는 독일의 개념사 그리고 아날학파와 메를로-퐁티(Maurice Merleau-Ponty)의 현상학의 영향을 받은 르포르(Claude Lefort) 및 로장발롱(Pierre Rosanvallon)의 정치철학을 다루었다. 특히 각각의 흐름에 제시하는 정치철학의 정의, 대상, 방법론을 살펴 보면서 각각의 학파에서 이해하는 정치철학과 역사와의 관계 설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정치철학의 정의와 그 역할에 대해 어떻게 사유하고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이러한 흐름들에 비추어 한국에서 정치철학과 정치사의 관계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몇 가지 연구의 흐름에 대해 평가해 보고 궁극적으로 한국에서 정치철학 및 정치사의 과제로부터 한국정치철학의 연구대상과 방법론이 유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국 한국정치철학의 과제는 한국에서 근대성의 형성에 대한 이해가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주제어: 정치철학, 정치사, 근대성, 레오 스트라우스, 코젤렉, 스킨너, 르포르, 로장 발롱

I. 들어가는 말

중세 때부터 자리를 잡은 소르본대학이나 옥스퍼드, 케임브리지대학과 달리 근대적 대학의 시초로 여겨지는 베를린대학 출발은 근대적 학문 체계의 성립과 맞물려 있다. 베를린대학 출발의 중심에 있었던 칸트는 자신의 저서 『학부들의 논쟁』을 통해 “정부의 명령으로부터 독립하여 이성이 공적으로 말할 권리를 지녀야만 하는 진리에

관계하는 자유”를 가지는 학부, 즉 철학부를 모든 다른 학부들을 관장하는 위치에 놓고자 하였다(Kant 2012). 중세학문의 중심이었던 신학으로부터 벗어나 인간의 이성에 바탕을 둔 철학을 학문의 중심에 놓고자 했던 칸트의 주장은 근대적 학문체계 및 교육체계의 등장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19세기 동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학과들이 서서히 형성되고 본격적으로 대학 내에 분과학문으로서 체계화되면서 제도적으로 대학 내에 학과로서 위치하게 된다. 19세기를 걸쳐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른 부의 산출의 영역을 다루는 경제학, 국가와 통치의 문제를 다루는 정치학, 개인들의 합으로 환원되지 않는 사회 및 사회적인 것의 문제를 다루는 사회학의 탄생이 그것이다.¹⁾ 19세기 말에 이러한 학과들은 제도적으로 대학에 자리잡지만, 그 과정은 순탄하지는 않았다. 하나의 학과로서 자신의 고유한 명칭의 문제에서부터 연구대상과 범위, 방법론을 둘러싼 다양한 내부 흐름들의 논쟁, 학회와 같은 전국적 조직망, 학술지 등의 조직적 활동과 권력관계 등등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었고, 그것들을 해결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서서히 대학에 자리잡기 시작한 것이다.

푸코는 1970년 콜레주드프랑스 교수 취임강연 “담론의 질서”에서 “학과(discipline)”의 형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하나의 분과학문이 형성되는 과정은 학문으로서 고유한 연구대상과 방법론의 설정 그리고 학문적 조직을 통한 내·외부적 배제의 과정임을 보여준다(Foucault 1993). 결국 학문으로서 학과 혹은 분과학문은 자신의 고유한 대상과 방법론, 학문적 조직을 통해 구성되며, 그것은 학과 자체의 본성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정치학의 한 분야로서 정치철학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물론 정치철학이 하나의 분과학문이라고 분류되기는 어렵지만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지닌 학문적 분야로서 정치철학 역시 자체의 정의(definition)를 통해 그 방법론과 연구대상을 구성해 낸다. 즉 정치철학은 무엇을 할 것인가의 문제는 어떤 연구대상을, 어떠한 방법론을 통해 접근하여 어떠한 목적을 이루어낼 것인가의 문제와 결합하여 하나의 전체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정치철학에 대한 정의가 동일한데, 방법론이나 연구대상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²⁾ 또한 정치철학의

1) 그 외에도 이미 19세기 초반부터 서구 자본주의의 제국주의적 진출과 더불어 지리학, 인류학의 형성의 역사를 충분히 볼 수 있다. 19세기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 새로운 지적 흐름과 학과로의 분화에 대해서는 파브르(Favre 1989), 로그(Logue 1983), 콜리니(Collini 1979), 르페니스(Lepenies 1985), 트리브(Tribe 1988; 1995) 등을 참조할 수 있다.

2) 예를 들어 양승태(2015)는 현대 정치사상연구의 흐름을 5가지 - 옥스퍼드학과, 후기 프랑

이러한 차이들은 정치철학의 다양한 학파들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것은 당연하게 각각 그 학파들이 형성된 나라의 특수성 - 결국 '정치적인 것'의 문제의 차이 - 을 반영한다. 즉 개별 나라들의 정치적 문제의식으로부터 고유한 정치철학적 과제를 추출하게 되고 그로부터 정치철학의 정의와 방법, 대상을 설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주요하게 20세기 후반의 정치철학의 흐름들 가운데 역사(학)과의 관계 설정의 문제를 둘러싼 주요한 네 가지 흐름들, 즉 미국 시카고학파를 형성한 레오 스트라우스(Strauss)의 정치철학, 스킨너(Skinner)를 중심으로 하는 영국 케임브리지 학파, 코젤렉(Koselleck)을 중심으로 하는 독일의 개념사 그리고 아날학파와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의 영향을 받은 르포르(Lefort) 및 로장발롱(Rosanvallon)의 정치철학을 다루고자 한다. 각각의 흐름에 제시하는 정치철학의 정의, 대상, 방법론을 살펴 보면서 각각의 학파에서 이해하는 정치철학과 역사와의 관계 설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정치철학의 정의와 그 역할에 대해 어떻게 사유하고 있는지를 보고자 한다. 이러한 흐름들에 비추어 한국에서 정치철학과 정치사의 관계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몇 가지 연구의 흐름에 대해 평가해 보고 궁극적으로 한국에서 정치철학 및 정치사의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정치철학의 다양한 조류와 상이한 출발점들

1. 근대에 대한 비판과 고대로의 회귀? - 스트라우스의 시카고학파

레오 스트라우스의 정치철학은 한국 정치학계에서 정치철학 및 사상을 전공 혹은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가장 영향을 끼친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한국 정치학계에 미국정치학의 지배와도 무관하지 않으며, 또한 서양정치철학을 행하는 데 역사(학)적 접근의 한계 그리고 정치학 고전의 독서의 필요성 등과도 깊은 연관성이 있다.

크푸르트학파, 시카고학파, 케임브리지학파, 개념사학파 - 로 나누면서 그들의 특성을 분별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들의 방법론에 대한 개략적인 비교를 통해서일 뿐이다. 그리고 아렌트학파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거친 구분의 경우 그 기준의 모호함과 불균등이 존재한다.

레오 스트라우스는 정치철학을 “좋은 삶, 좋은 사회가 무엇이나는 지식을 향한 지향성”으로 명시화하고 그러한 것에 대한 탐색이라고 정의한다(Strauss 2002, 10-11). 레오 스트라우스의 이러한 정치철학에 대한 정의는 플라톤의 정치철학에 대한 절대적인 의지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그는 플라톤의 정치철학에 기반하여 근대정치철학에 대한 비판을 수행하였다. 고대정치철학의 질문은 “최선의 정치체제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었다. 여기서 정치체제란 질서, 형식이며, 삶의 특정한 양식이다. 그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형식이며 사회를 살아가고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양식이다(Strauss 2002, 45). 결국 정치체제의 문제는 정치적인 것의 문제이다. 레오 스트라우스의 정치철학은 철학의 일부분이자 한 분야라는 점을 강조한다. 정치철학을 철학의 한 분야로서 이해함에 따라 정치철학은 “정치적인 것들의 본질에 대한 의견을 정치적인 것들에 대한 지식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로서 자신의 역할을 자리매김한다(Strauss 2002, 13). 결국 정치철학은 진리에 대한 학문이 되며 정치의 영역 역시 진리의 영역이 된다.

레오 스트라우스의 정치철학 및 그 역할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역사에 대한 부차화로 이어진다. 그는 “역사적 지식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그것은 정치철학에 예비적 또는 보조적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Strauss 2002, 78). 레오 스트라우스는 정치철학이 역사의 한 분야가 아니며, 정치철학적 질문과 역사학적 질문은 근본적으로 상이하다고 말한다. 즉 정치철학적 질문이 정치적인 것, 최선의 혹은 정의로운 정치질서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질문이라면, 역사학적 질문은 언제나 개별적인 것, 그리고 시초에서 현재에 이르는 과정들 가운데 개별화된 과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Strauss 2002, 77). 나아가 레오 스트라우스는 정치철학을 비과학적이라는 이유에서 거부하는 현대 실증주의에 대한 비판을 수행한다. 고대정치철학에 기반하고 있는 레오 스트라우스는 근대정치철학사를 기본적으로 역사주의화의 과정으로 이해한다(Strauss 2001). 마키아벨리에서 시작된 근대정치철학은 좋은 사회, 좋은 삶에 대한 추구를 포기하면서 현실주의적 관점을 채택하였다. 마키아벨리의 지평 위에 자연법을 이식한 홉스는 최선의 정치체제라는 이념을 정당한 사회질서라는 이념으로 대체하였다. 루소는 고전적인 의미에서 ‘자연적으로 좋음’에 대한 탐구를 제거하고 일반의지를 실정법의 원천이자 정치적 삶의 기준으로 삼았다. 칸트와 헤겔(Hegel)의 작업을 통해 이상은 구체화되고 현실화되면서 역사적 과정으로 대체된다. 니체(Nietzsche) 그리고 하이데거(Heidegger)로 이어지면서 수행된 역사철학에서 실존주

의로 전환은 정치철학을 위한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실존만을 문제삼게 되어버렸다. 그것은 근대정치철학의 위기이자 근대성 자체의 위기이다.

가치판단을 거부하고 상대주의 및 과학적 지식의 절대적 우위성 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실증주의는 결국 역사주의로 귀결된다고 레오 스트라우스는 본다. 이러한 역사주의는 '최선의 사회가 무엇이나'라는 질문을 거부한다. 즉 정치철학 자체를 부정하기에 이른다. 역사주의는 최선의 혹은 정의로운 정치질서가 무엇이나는 질문을 '가능한 혹은 바람직한 미래가 무엇이나'라는 질문으로 대체해 버렸다. 즉 철학적 질문을 미래학적 성격의 역사적 질문으로 변형시킨 것이다. 역사주의자들은 개별의 정치철학과 그것이 출현한 역사적 상황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결정적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정치철학의 다양성을 주장하지만, 스트라우스는 고대정치철학의 진리 자체로서의 의미를 강조한다. 즉 최선의 정치질서에 대한 질문을 근대민주주의와 같은 특정한 정치형태에 대한 질문으로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스트라우스는 막스 베버가 사실과 가치를 구분하는 것은 표면적인 이유이며, 그 밑바탕에는 '서로 갈등하는 가치들 간의 화해불가능성'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본다(Strauss 2001, 55-57). 하지만 이렇게 가치의 화해불가능성을 받아들였을 경우 허무주의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레오 스트라우스는 정치철학을 공동체에서 추구되는 가치들 간의 우열, 즉 가치들 간의 객관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것으로 정의한다(박성우 2014, 7).

역사에 대한 배제 속에서 레오 스트라우스는 정치철학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가? 시카고학파의 정치철학 방법은 텍스트에 대한 치밀한 독해이다. 고대의 텍스트는 단순히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암호 풀이와 같은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숨겨진 암호를 찾아 비로 쓸 듯이 살살이 읽어야"라고 말하는 경구가 말해주듯이, 고전연구에 있어서 암호해독을 위한 텍스트의 집요하고 철저한 정밀 독해를 강조하는 것이다(김홍우 1992, 1). 레오 스트라우스의 이러한 독해법은 유대교의 일부에서 전승된 밀교적 경전 해석법인 '카발라'의 영향 때문이라고 보기도 한다(함규진 2014). 이러한 '경건한 고전읽기'의 전통은 유럽 고전문헌학의 전통의 계승 속에서 현재화되고 있다. 특히 고대정치철학, 플라톤을 비롯한 고대 정치철학의 고전들에 대한 엄밀한 독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2. 근대에 대한 비판과 잊혀진 경쟁적 구상의 발굴 - 스키너의 케임브리지 학파

퀸틴 스키너는 시간이 흐르면서 과묵히 버린 근대 초에 있었던 경쟁적 구상, 하지만 어쩌면 정치적, 도덕적으로 현대 세계에 대한 대안적 구상으로서 의미를 지닌 것에 대한 질문과 발굴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정치철학을 수행한다. 스키너는 대안적 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 현재의 상황에서 도덕적, 정치적 이론이 무비판적인 이데올로기로 타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나아가 대안적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현재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추가적인 수단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Skinner 2012, 200-201). 공화주의 정치철학자이자 이론가로서 알려진 스키너의 마키아벨리 및 근대정치사상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 대한 비판적 의미를 지니면서 자유주의에 가려져 버린 공화주의의 사상적 조류를 복원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Skinner 2004, 2010). 또한 자유주의 이전의 자유에 대한 그의 정치철학서는 권리 이론 없이 개인적 자유이론이 있을 수 없다는 자유주의적 사유에 대한 비판 나아가 18세기 이래 공리주의, 자유주의의 승리 속에서 급속히 쇠락해 버린 공화주의적 자유, 즉 '신로마적 자유국가이론'을 복원하고자 한다(Skinner 2007). 이러한 대안적인 정치적 사유를 복원하고 또 그것이 갖는 현재적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스키너의 정치철학은 이러한 목적에 적합한 고유한 정치철학 방법론과 대상을 가지고 있다.

스키너는 자신의 본격적인 연구작업을 행하기 앞서 기존의 정치철학 연구방법에 대한 비판을 수행하였다. 특히 레오 스트라우스의 텍스트중심주의와 맥퍼슨(Macpherson)의 맑스주의적 접근, 즉 사상을 사회경제적 원인의 작용의 결과로 환원시키려는 방법론에 대해 비판하면서 자신의 맥락주의(contextualism)를 체계화한다. 그는 텍스트를 이해하려면 말해진 것의 의미에 대한 설명만이 아니라 해당 저자가 그런 말을 함으로써 담아낸 의미에 대한 설명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Skinner 2012, 131). 스키너는 저자의 말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이러한 맥락(context)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러한 맥락 속에서 저자가 무엇을 말하고 행하고자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단위 관념'을 추적하거나 '영속적인 사안들'에 대한 질문의 답을 다루는 것은 피해야 할 연구방법이라고 말한다(Skinner 2012, 140). 스키너는 '영속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그것에 대한 비교를 행하고 있는 레오 스트라우스의 정치철학과 서로 다른 맥락 속에 위치한 사상가들을 같은 묶음의 질문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는 맥퍼슨의 정치철학이 모두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다.³⁾ 스키너는 “개별적인 질문들에 대한 개별적인 답변만이 있을 뿐”이며, “질문자의 숫자만큼이나 많은 다른 질문”이 있다고 말한다(Skinner 2012, 143). 즉 여러 행위자들에 의한 여러 다른 의도로 작성된 여러 다른 진술들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진술들, 즉 텍스트에 대한 이해는 “그것이 무슨 의미로 의도되었으며, 어떤 식으로 그런 의미를 갖도록 의도되었는지”에 대해 파악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Skinner 2012, 141). 이러한 의도들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은 언어학적 작업으로서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스키너는 이러한 언어학적 작업의 배경에는 포스트모던 철학자들에 의한 일종의 ‘공격’으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았으며, 그로부터 의미를 둘러싼 다양한 해석의 조류들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우선은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 푸코 등에 의한 ‘저자의 죽음’ 그리고 데리다(Jacques Derrida) 역시 그에 가세하여 텍스트 해석이라는 생각 자체의 오류에 대한 지적이 그것들이다. 데리다가 ‘텍스트 바깥에 아무 것도 없다’라고 선언한 것은 결국 저자의 의도나 그와 관련한 의미는 사실상 독자들에게 아무런 지시를 가져다 주지 않으며, 독자들에 의해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결국 우리가 사물을 지시하기 위해 택하는 단어들에 ‘고정된 의미’가 없다는 주장으로 다소 간략히 요약된다.⁴⁾ 의미를 둘러싼 두 번째 해석의 가

3) 스키너는 이러한 기존의 정치사상연구자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개의 신화에 대해 비판한다.

즉 저자의 교리를 발견하려는 기대, 저자들의 사상의 일관성에 대한 신화, 그것들로부터 인해 발생하는 예기의 신화, 즉 현재로부터 소급하여 과거의 사상을 해석하려는 믿음 등을 비판한다(Skinner 2012, 104-130).

4) ‘언어적 전회(lingustic turn)’이라 불리는 1960년대 발생한 인문사회과학에서의 언어학적 전환은 소쉬르(Saussure)의 구조주의적 언어와 비트겐슈타인(Wittgenstein)의 언어학에 기반하여 지성사가 이제 말과 글이라는 언어가 아니라 법칙을 가지고 있는 일련의 기호 체계라는 의미의 언어이며, 이해하고 정의할 수 있는 문화 체계로서 언어를 이해하고 그에 따라 현실을 ‘언어의 감옥’에서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이루어진 변화를 말한다. 역사학에서는 카(Carr)의 객관주의적이고 목적론적 진보사관으로부터 벗어나 ‘담론으로서 역사’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김기봉 2008). ‘언어적 전회’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로티(Rorty)는 언어는 대상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우연하게 정해지는 것이며, 따라서 어떤 고정된 의미가 있다는 생각 자체가 언어를 신비화하려는 시도라

능성은 폴 리코르(Paul Ricoeur)의 해석학으로부터 유래한다. 리코르는 텍스트가 원래 의도된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시간의 경과나 언어의 다의적이고 은유적인 특징 때문에 저자의 의도가 아닌 의미의 자율성을 획득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문장으로 환원되지 않는 구조화된 전체로서 “텍스트가 의미하는 바는 더 이상 저자가 의미한 바와 일치하지 않”으며, “올바른 이해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단순히 저자의 의도에 돌아감에 의해 해결될 수 없다”고 결론짓는다(Ricoeur 2003, 245; 369).⁵⁾ 따라서 텍스트의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저자의 의도보다는 그 텍스트가 얻게 되는 공적인 의미들이며, 해석을 둘러싼 갈등은 논의의 과정 속에 놓여지는 것이다.

앞서 두 가지 입장의 경우 저자의 텍스트나 그의 의도보다는 독자의 해석의 문제 그리고 텍스트 자체의 자율성이 중시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세 번째 입장의 경우 저자의 의도가 중시되며, 스키너 자신은 저자의 의도와 관련된 텍스트의 의미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것은 저자의 의도와 텍스트의 의미를 가장 긴밀하게 연관짓고자 하는 시도로서, 스키너는 오스틴(Austin)으로부터 빌려온 개념인 발화수반적(illocutionary) 효력을 강조한다. 즉 어떤 발언의 발화수반적 효력에 대해 이해한다는 것은 화자가 그 발언을 내놓음으로써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된다(Skinner 2012, 160). 스키너는 발화수반적 효력의 이해를 통한 저자의 의도에 대한 이해가 저자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특정한 노선이나 입장, 담론을 비판하거나 옹호할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본다.⁶⁾ 이러한 저자의 의도의 복원 작업은 특정

고 비판한다. 로티는 진리가 문장의 속성이며, 문장은 어휘에 의존하고 다시 어휘는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진리 역시 결국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한다. 결국 진리의 객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이유선 2006, 150; Jay 1986).

- 5) 이후 보게 될 프랑스의 로장발롱의 구체적인 연구방법의 경우 폴 리코르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로장발롱은 리코르가 프랑스의 역사학자들이 많이 읽는 철학자라고 말한다.
- 6) 스키너는 저자가 의도하지 않는 의미를 저작이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적어도 해석자의 임무에는 그 글쓰기에 있는 저자의 의도를 복원하는 일이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 부분에서 스키너는 리코르와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오스틴(Austin)과 서얼(Searl)의 경우 담화행위는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된다. 첫째, 발화 또는 명제진술적 행위, 둘째, 발화수행적 행위, 즉 수행하고자 의도하는 행위, 셋째, 발화효과적 행위, 즉 말하기 행위를 통해 부수적으로 불러일으키는 행위이다(Ricoeur 2003, 237). 리코르는 텍스트를 통한 저자와 독자 사이의 소통은 없다고 본다. 즉 글쓰기 행위에는 독자가 부재하고, 읽기 행위에는 저자가 부재한다. 따라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 때문에 텍

한 텍스트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텍스트가 쟁점이나 주제를 다루는 방식을 좌우하는 지배적 관습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스키너를 말한다. 결국 지배적 관습, 즉 언어적 협약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면, 텍스트에 대한 이해의 작업은 역사(학)적 작업일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스키너를 텍스트를 둘러싼 다양한 주변의 텍스트를 읽으면서 그 텍스트를 둘러싼 언어의 협약을 찾아내고 그것을 통해 저자의 의도를 찾고자 한다. 그에게 맥락은 텍스트를 둘러싼 역사인 것이다.

3. 독일적 근대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와 그 접근 - 개념사학파

독일에서 개념사는 코젤렉(Koselleck)이 1972년 증세법제사가 오토 부르너(Otto Brunner)와 사회사가 베르너 콘체(Werner Conze)와 함께 『역사기본개념. 독일의 정치 사회적 언어 역사 사전』이라는 개념사 사전의 첫 번째 권을 출판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지속된 이 사전 편찬 작업은 1998년 120개가 넘는 기본 개념이 약 7,000쪽에 걸쳐 서술되고 8권의 성과물로 완결되었다(나인호 2011, 17). 코젤렉의 개념사의 기본적인 출발점은 근대성의 숨겨진 다양한 측면들 그리고 다양한 경로들에 대해 역사적으로 성찰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이며, 그에 따라 근대세계의 탄생과정에 대한 세밀한 탐구를 목적으로 고유한 방법론을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특히 독일의 개념사 학파는 독일의 고유한 그리고 특수한 발전 - Sonderweg - 을 주창하면서 독일어권에서 근대가 특유한 형태를 띠고 등장하게 되는 과정을 추적하려는 의지를 보인다(Richter 2010, 104). 연구의 출발점은 근대 세계의 출발들이다. 따라서 개념사는 정치, 사회, 경제를 논의하기 위해 사용된 언어에 대한 연구와 갑작스럽고 급진적인 구조적 변화에 대한 탐색을 결합시키고자 한다(Richter 2010, 85). 결국 이들의 작업은 개념사와 사회사의 결합이라는 성격을 가지게 된다.

‘개념사’의 기본적인 초점은 “정치·사회사상에서 사용된 주요 개념들의 의미의 연속, 변모 및 혁신”이다(Richter 2010, 34). 정치·사회적 언어는 환경의 변화 속에서 연속성을 유지하기도 하고, 또한 반대로 변모하면서 단어의 차원을 넘어 의미구조나 개념의 망 속에서 특정 이데올로기나 담론을 구성하게 된다. 따라서 개념의 역사에 대

트가 저자의 의도로 환원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 반면에 스키너는 저자의 의도 파악을 텍스트 해석에 중심에 두고 있다.

한 탐구 즉 개념사와 사회사의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된다.⁷⁾ 이것은 개념적 변화와 사회적 변화 사이에 역동적 상호작용이 존재한다는 이유에서이다. 또한 개념사는 문헌학, 사전편찬학, 역사적 의미론, 언어이론 및 구조언어학에서 활용된 방법론을 도입 하면서 통시적, 공시적 언어분석, 총칭 및 총의론의 기호학, 기호학적 장(field) 이론 등을 활용하여 개념의 변화를 추적하고자 한다. 언어는 구조변화의 행위자이자 동시에 지표이기 때문에 개념사 연구는 철학, 역사적 의미론, 구조언어학에서 유래한 방법론을 적절하게 수용하여 사용하고자 한다(Richter 2010, 83). 마지막으로 개념의 사용과 그 변화를 구성해 내기 위하여 광범위한 자료를 분석할 것을 요구한다. 이 경우 대사상가의 문헌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엘리트와 다양한 계급, 계층이 이용하고 제작한 신문, 잡지, 보고서, 연설문, 회고록, 서신, 일기, 행정서류 등을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조감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개념사 연구자 리히터는 포콕(Pocock)과 스키너의 연구와 개념사학과를 비교하면서 스키너의 연구 - 특히 『근대정치사상의 토대』 - 가 “경쟁집단, 운동 또는 권력자들 사이 투쟁의 언어 속에서 개념의 용법을 추적하기보다는 개별 이론가를 공화주의나 절대주의의 범주 속에 넣음으로써 논쟁의 맥락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것은 근대 국가를 향한 역사적 발전이라는 목적론적 전제가 강하게 존재한다고 비판한다(Richter 2010, 233). 이러한 점 때문에 스키너의 경우 언어적 쟁론은 경쟁적 정치·사회집단을 대표하는 인물들 사이에서 등장하기 쉽고, 그들이 다루는 자료 역시 코젤렉의 개념사가 다루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 코젤렉은 역사적 실재를 언어와 텍스트로 환원시킨 자신의 스승 가다머(Gadamer)의 철학적 해석학을 언어결정론적 태도라고 비판하면서, 역사가 언어로 환원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나인호 2011, 48-49). 코젤렉은 개념사와 사회사와의 긴밀한 연관관계를 염두에 두고 있다. 개념사는 사회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용어들의 용법에 주목하며, 개념들에 대한 역사적 해명은 언어사적뿐만 아니라 사회사적 자료들과도 연관되어야 함이 강조된다(Koselleck 1998, 128-129).

또한 독일의 개념사 연구는 프랑스의 역사학 특히 아날(*Annales*) 학파의 일정한 영향을 받았다. 우선 코젤렉의 연구가 근대의 시원 및 근대성에 대한 탐구라는 점에서 장기지속의 시간 속에서 그 변동을 추적한다. 코젤렉은 특정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7) 여기에서 사회사는 구조분석으로 정의될 수도 혹은 심성의 역사로 정의될 수 있다.

개별 언어 행위를 통해 발생하는 개념의 일회적 의미와 기능을 묻는 사건사적 관심을 넘어서 보다 장기적인 시간 지속 속에서 반복되는 개념에 축적된 일련의 구조화된 의미들을 조명하려는 구조사적 관심을 기울인다(나인호 2011, 75). 사건, 장기지속의 시간, 구조에 대한 이해는 아날의 2세대의 대표주자였던 브로델(Braudel)이 정교화한 개념들로부터 시작된다. 코젤렉이 편집한 『역사 기본개념』의 경우 대략 1700년에서 1900년까지의 시기를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다양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개념의 변동을 추적하거나 하나의 개념이 가지고 있는 비동시성에 주목하고자 하였다.⁸⁾ 코젤렉은 개념사 연구에 있어서 어떤 역사의 가능성을 근거짓는 인식범주로서 '경험공간'과 '기대지평'이라는 범주를 제시한다(Koselleck 1998, 388-415). 인류학적으로 주어진 경험과 기대 사이의 긴장을 포함한 시간성의 지표를 통해 다양한 근대의 생성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 속에서도이다. 나아가 코젤렉의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는 로프 라이하르트(Rolf Reichardt)가 기획한 『프랑스 정치·사회 기본개념 편람』의 구조사적 개념사는 비언어적 상징과 아이콘에 대한 연구는 물론 심성(mentalité)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 범위를 넓히기도 하고 있다(Richter 2010, 148).

코젤렉은 개념사 연구를 통해 '실재세계의 변화'와 역사 행위자들의 '의식의 변화' 사이의 복잡한 상호관계를 재구성하였다(나인호 2011, 142). 근대화론에 입각한 사회사 연구에 대해 비판적 대화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개념의 변동을 통해 드러나는 역사행위자의 주관적 세계, 결국 인간의 주체적 대응과정의 역사를 부각시켰던 것이다.

4. 근대 민주주의의 정치철학과 역사에 대한 사유 - 르포르와 로장발롱

로장발롱은 '민주주의는 역사를 가진다'를 넘어서 "민주주의는 역사이다"라는 테제

8) 이러한 점에서 스키너는 코젤렉과 자신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나는 개념의 운(fortuna)에 나타난 이런 종류의 장기적 변동이 주요 관심사가 아니었음을 고백한다. 여기에서 나의 접근은 코젤렉과 그의 동료들의 그것과 뚜렷하게 갈린다. 그들은 더 느린 시간의 흐름에 주로 몰두해 왔고, 갑작스러운 개념 변동에 대한 점묘법적인 연구에는 나보다 관심이 훨씬 덜했다.”(Skinner 2012, 284). 코젤렉이 장기간의 흐름 속에서의 '구조'의 변동에 관심을 더 기울였다면, 스키너는 '사건'을 중심으로 하는 맥락에 관심이 더 기울었다고 할 수 있겠다.

를 통해 자신의 작업의 성격을 대변한다(Rosanvallon 2002). 결국 근대 정치에 대한 이해는 곧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이며, 민주주의가 가진 모순적 특성을 근대성 자체로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이는 다분히 토크빌의 지대한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성 내지는 근대 민주주의 자체에 내재해 있는 전제정의 경향과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민주주의 자체의 본성, 그리고 그러한 변동을 장기지속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읽고자 했던 토크빌의 사유가 그것이다. 근대의 역사는 민주주의의 내재적 모순의 발현과 조절의 과정이었으며, 그러한 민주주의의 모순성과 역사를 들여다보는 작업이 정치철학자의 작업이다. 로장발롱은 이러한 정치철학자의 작업을 “정치적인 것에 대한 개념적 역사”라고 정의하고 ‘정치적인 것에 대해 사유’할 것을 주장한다.

로장발롱의 정치적인 것에 대한 구체적 개념화 작업은 르포르에 의존하고 있다. 근대적 권력에 대한 르포르의 정치신학적 이해는 근대적 권력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칸토르비치(Kantorowicz)가 잘 보여주었듯이, 중세 군주의 몸은 물리적 몸이면서 동시에 정치체의 영속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몸이기도 하였다. 근대 정치권력의 경우 정치체의 영속성을 보장해 줄 군주의 몸이 사라진 상태 속에서 다양한 상징적 장치들을 통해 권력을 영속성을 보장한다. 따라서 물리적 신체로 표상되었던 권력의 자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빈 장소’로 남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권력의 빈장소를 독점하려는 경향성이 지속적으로 등장한다. 근대 민주주의 사회는 그 토대의 불확실성·역사법칙·지식·권력의 분열에 열려 있으며, 권력을 체화할 수도, 전유할 수도 없기에 권력의 자리를 하나의 공백의 장소(un lieu vide)로서 만든다.⁹⁾

민주주의 사회의 비결정성, 빈장소로서 권력, 열린 장으로서 정치적인 것을 사유하고 이해하는 것은 관계들의 체계로서 사회를 이해하는 사회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바로 정치철학의 영역이다. 정치적인 것에 대한 이러한 개념화 작업을 통해 르포르의 정치적인 것을 이해하기 위한 작업으로서 정치철학을 특권화한다. 정치적인 것

9) 전체주의는 바로 이러한 비결정성을 거부하는 것이며, 역사법칙·지식·권력을 통합하려는 욕구로부터 발생한 것이다(Caillé 1993, 56-57). 1970년대 자유주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전개된 전체주의에 대한 논쟁은 프랑스 정치철학의 새로운 전환과 부흥을 가져온 계기이기도 하다. 스탈린과 히틀러 체제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맑스주의의 무능력 - 스탈린 체제의 경우 맑스주의 이름으로 행해진 것에 대해 맑스주의가 설명하지 못한다는 알튀세리안의 비판 등 -, 그리고 전체주의를 이해하는 통로로서 정치철학적 언어의 유효성을 통해 1980년대 이후 정치철학의 부흥을 가져온다.

(le politique)이 사유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정치(la politique)는 과학의 대상이다. 정치(과)학(science politique)이 주목하는 지점은 정치체계의 모든 모델화에 전제되는 경험적 관찰에 있다. 과학으로서 정치에 대한 인식은 부분적 지식일 뿐이며, 정치학은 근대사회의 특수성을 묻지 않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한다. 반면에 정치적인 것에 대한 사유는 근대사회의 영역들을 분화시키는 원칙의 기원에 대해 질문한다. 정치학이 정치적 체계의 객관적 지식에 매달린다면, 정치적인 것에 대한 사유는 정치적·경제적·종교적 영역의 분화가 구성하는 사건들을 이해하려고 한다. 요컨대 정치적인 것에 대한 사유가 묻고 있는 것은 영역들의 분화를 명령하는 원칙에 대한 것이다.

정치학이 '실재적' 특징을 갖는 것들에 관심을 가진다면, 정치적인 것에 대한 사유는 사회적 공간을 제도화하는 원칙들을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그 기원을 찾기 위해서 '실재적인' 것을 넘어서야 한다. 실재와 표상 사이의 간극이 존재하며, 사회는 실재 속에서가 아니라 상징적인 것의 질서 속에서 제도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적인 것을 사유한다는 것은 경험적이거나 규범적인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것이라고 명명한 것들을 드러내는 작업이다. “철학자는 체제와 사회형태 속에서 계급·집단·조건을 분화시키고 그들의 관계를 설정하는 방식, 그리고 동시에 공존의 경험이 정렬되는 기능을 하는 표식들, 즉 경제적·법률적·미학적·종교적 표식들의 구분 방식이 합당한 이유를 갖도록 하는 내재화의 원칙을 찾는다”(Lefort 2015, 257). 사회의 상징적 축은 세계와 상징적인 것의 관계를 결정짓는 원칙들의 총체와 동일하다. 한 사회를 이해한다는 의미는 그 사회의 제도와 그 제도를 발생시키는 원칙을 이해한다는 의미이며, 인간과 세계와의 관계들의 구성적 차원에 대한 개념의 정립이다. 그런 의미에서 르포르는 사회에 대한 역사적 차원의 이해를 강조하고 '정치사'의 의미를 부각시킨다(Lefort 2015, 143-149). 정치사는 상징적인 축으로 간주되는 권력을 중심으로 놓으면서 정치적인 것이 구체화되는 것 즉, 권력의 결정-형체화(détermination-figuration)에 영향을 미치는 전환들을 이해하고 분석한다. 근대사회에 대한 정치적 정의라는 개념을 통해 르포르는 제요소의 분화와 절합의 원칙, 사회 속에서 인간들이 공존하는 형태에 대한 원칙을 파악하고자 했던 것이다.

정치사에 대한 천착을 통해 정치적인 것의 사유로서 정치철학을 좀 더 체계적인 작업을 통해 보여준 것은 르포르의 제자인 로장발롱이다. 그는 프랑스혁명 이후 역사

속에서 정치적인 것에 대해 사유하는 작업을 자신의 저술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¹⁰⁾ “정치적인 것을 소유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것에 의해 결정된 사회적 것의 형태를 밝히는 작업이며, 인간들 간의 관계, 인간과 세계와 관계를 결정하는 표상들에 드러난 표적을 발견하는 작업이다(Lefort 2015, 330). 정치적인 것은 사회조직이나 정치제도, 무엇보다 국가기구의 문제로 환원될 수 없다. 정치적인 것에 대한 이해로서 정치철학은 역사(학)에 의지해 성립된다. 즉, 집단·계급들 관계의 형성과 차별화의 양식 혹은 그들의 공존의 경험들을 정렬시키는 지표들 - 경제적·법률적·미학적·종교적 지표들 - 에 대한 이해가 바로 정치적인 것을 이해하는 것이며 그것이 정치철학의 대상이다. 정치적인 것에 대한 이해의 방법·수단이 바로 정치철학이며, 그것은 “정치적인 것에 대한 개념적 역사”를 통해서 가능하다(Rosanvallon 1986; 2002). “정치적인 것에 대한 개념적 역사”는 정치적·사회적 합리성들, 정치적인 것의 표상이 제도들, 관리의 기술들, 사회적 것의 관계 형태들 속에서 변환의 관계를 가지면서 변형되는 역사적 고리들을 밝혀내는 작업이다. 로장발롱은 사회사에 대한 강조를 빠트리지 않는다. 그는 사회사가 권력과 이해관계 쟁투와 대립의 해석에 중요하며, 그것은 고유하게 정치적인 장에서 입장과 행위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격자를 제공한다고 말한다(Rosanvallon 2002, 21). 정치철학은 정치 공동체의 구체적 문제와 관련되어야 한다. 정치철학은 “정치 공동체의 실재적 정치 속에서 드러나는 경험과 의견들과 필연적인 관계”를 특징으로 한다(Raynaud 1996). 정치적인 것을 이해하는 것은 그것을 역사적·사회적 총체를 포괄하는 원칙으로 이해한다는 것이며, 그것은 바로 정치사상(les idées politiques)과 역사(l’histoire)가 접합되는 지점이다.

르포르 및 로장발롱 등이 ‘정치적인 것에 대한 개념적 역사’를 통해 새롭게 복원한 정치사는 특히 프랑스에서 ‘기조(Guizot)’의 발견 및 국가에 의한 자유주의 그리고 정치적 자유주의의 전통 등이다. 이성의 주권을 주장했던 프랑수아 기조의 정치철학은

10) 로장발롱의 대표적인 정치철학서이자 정치사에 관한 저작은 우선 *Le moment Guizot*(1985) 이후, 프랑스정치사에 대한 3부작, 즉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시민권, 대표, 주권의 문제를 다루는 세권의 책, *Le sacre du citoyen*(1992), *Le peuple introuvable*(1998), *La démocratie inachevée*(2000)과 종합적인 저술 *Le modèle politique français*(2004) 등이 있으며, 그와 함께 다양한 현실정치에 대한 조언서 등이 있다. 로장발롱 이외에도 파리 사회과학고등연구원(레몽 아롱정치연구소)에 소속해 있는 고쉴(Gauchet), 게니페(Gueniffey), 줌(Jaume) 등이 프랑스 정치사를 통한 정치철학의 작업을 행하고 있다.

프랑스 국가주의의 기저에 있는 정치적 전통이었으며, 잊혀진 사상가였던 기조가 오히려 제3공화국 이후 프랑스 국가주의 전통에 자리잡고 있음을 로장발롱은 보여주고자 하였다. 기조의 자유주의는 영국적 자유주의인 개인주의적 흐름과 구별되게 일반의지의 체현으로서 국가는 개인의 자유의 실현을 위한 통로 역할을 하였고, 그러한 의미에서 프랑스적 자유주의는 ‘국가에 의한 자유주의’였다는 것이다. 그러한 국가주의적 전통 때문에 프랑스의 자유주의는 동시에 정치적 자유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진다. 국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치적 자유는 국가가 전제정으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이다. 그러한 정치적 자유주의 전통에 대한 복원은 프랑스 공화주의 모델의 특수성에 대한 부각 그리고 현재의 프랑스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지적인 노력으로 확대된다.

III. 정치사와 결합한 정치철학

1. 사상사 및 관념사에 대한 비판

영국, 독일, 프랑스의 정치철학의 최근 흐름에서 공통된 것 중의 하나는 러브조이(Lovejoy) 식의 사상사(history of political thoughts) 혹은 관념사(history of ideas)에 대한 거부이다. 스키너는 쓰여져야 할 관념사란 존재하지 않으며, “관념의 다양한 용법에 관한 역사, 관념이 사용된 다양한 의도들의 역사”가 있을 따름이라고 말한다(Skinner 2012, 139). 독일의 개념사 학파 역시 러브조이가 창시한 미국의 ‘이념사(the history of ideas)’는 독일에서 마이네케 및 그 학파들이 실천한 이념사(Ideengeschichte)와 유사한 것으로 원자론적 연구라고 비판하였다(Richter 2012, 54-60). 이러한 이념사는 개별 이념의 내적 연관성을 무시하면서 양립불가능한 단위의념들로 구성된 철학체계와 이데올로기를 구성하고 그들의 전개를 파악하려 한다는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도 역사적 맥락과 민주주의적 근대성의 의미를 강조하는 프랑스 정치철학자 로장발롱의 입장에서 데이비드 헬드(David Held)의 『민주주의의 모델들』이라는 책은 그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는 모델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정치철학과 역사(학)의 결합에 기반한 새로운 정치철학의 추구라는 공통적 문제의

식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나라별 특수성 역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 정치철학과 역사(학)의 결합을 통한 근대성의 접근은 나름대로 자신들의 구체적인 현실의 반영이다. 레오 스트라우스의 시카고 학파의 근대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은 미국적 근대의 취약성, 즉 미국적 예외주의라고 불리는 것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 특히 존 듀이(John Dewey)의 실용주의적 교육과 시민관에 대한 비판적 검토 등을 통한 고전의 중요성과 이성적 사고의 강조로부터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레오 스트라우스의 개인적 측면으로서 그가 유대인으로서 헤브라이즘 전통 속에 있다는 점 역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점이다. 즉 앞서 언급하였듯이, 헤브라이즘의 카발라 전통이 그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언어의 공적인 사용에 대한 관심과 그것의 이해를 통해 정치적인 것에 대한 사유는 근대 이래 발달해 온 공론장(public sphere)의 역사를 반영한 방법론의 구축이다. 하버마스(Habermas)도 계몽시대 이래 공론장 발달의 전형적인 예로 프랑스를 들고 있듯이 공론장은 말이 이해되는 공간으로서 존재해 왔던 것이다. 또한 정치적인 것에 대한 강조는 1970년대 이후 전체주의논쟁을 거치면서 정치적인 것의 고유성에 대한 인식과 그 사유의 필요성에서 제기되었으며 그것이 역사학과 결합한 정치철학에 대한 개념 정립으로 이어졌다.

독일의 경우 개념사, 특히 사회구조의 역사와 결합한 역사에 대한 중요성 부여는 독일의 특수성, 즉 프랑스의 계몽주의적 그리고 보편주의적 문명과는 구별되는 독일의 근대형성의 특수한 길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에 등장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독일의 독특한 문화에 대한 강조 속에서 사회사와의 결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독일적인 문제의식의 발현 속에서 개념사라는 연구방법론의 특수성이 이해될 수 있다.

영국의 케임브리지 학파의 컨텍스트에 대한 강조는 휘그적 역사관에 대한 대안적 역사관의 추구하고 관련된다. 명예혁명 이후 자유주의의 승리의 역사 그리고 자유주의 주체화의 역사라는 휘그적 역사관에 의해 삭제되어 버린 대안적 역사의 복원이 케임브리지 학파의 주요한 과제였다. 또한 서구의 오랜 역사 속에서 묻혀 있던 로마 이래의 공화주의적 역사와 사상의 복원 역시 중요한 과제였다. 이러한 공화주의 사상과 역사의 복원의 노력은 곧 근대의 역사 속에서 자유주의와 경쟁적인 흐름을 형성한 해링턴(Harrington), 볼링브로크(Bolingbroke), 그리고 미국에서의 공화주의적 전통 등을 복원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이처럼 우리가 살펴본 네 개의 학파들의 정치철학의 기본적인 연구의 출발점은 자신이 담고 있는 정치공동체의 현재성이다. 자신이 속한 정치공동체의 현재성으로부터 정치철학의 과제와 정의가 도출되고 정치철학과 역사의 관계가 설정된다. 미국의 레오 스트라우스를 제외하고 시기적으로 20세기 후반 포스트 모더니즘과 언어학의 영향에 따른 언어학적 전회가 일정한 영향을 미치면서 방법론에서 엄밀화와 다양화가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다.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에 의한 근대성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는 근대성 자체에 물음으로 연결되면서 근대성의 보편주의적 성격과 더불어 개별 국가에서 등장한 근대성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였고 정치철학 역시 역사(학)적 접근을 통해 그러한 요구에 부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한국 정치철학과 역사

그렇다면 한국정치철학은 무엇이며, 한국정치철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면, 한국에서 정치학자는 어떠한 정치철학적 과제를 안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던져질 수 있다. 결국 이 문제들은 한국에서 정치철학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로 집약될 수 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한국정치철학의 대상과 방법이 결정될 것이다. 익히 알려졌듯이, 한국정치사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쇠락하고 있으며, 정치학과 내에서도 그 위상이 미약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정치에 대한 연구가 역사나 사상적 접근이 아니라 비교정치학적 접근, 즉 선거, 정당, 의회 등에 대한 연구에 치우치고 있으며, 한국정치에 대한 연구가 학문적 차원에서보다는 저널리즘적 접근으로 흐르는 경향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철학 연구자들 사이에서 정치사에 대한 고찰의 필요성 그리고 정치사 연구자들에 의한 실증주의적 접근을 넘어서 보다 포괄적인 연구, 즉 정치적인 것에 대한 탐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예를 들어 정치사상 연구자들에 의해 정치사상 연구와 정치사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김비환(1999)은 한국현대정치사 연구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이 정치경제학이나 정치사회학으로 주요하게는 정치적 근대화의 한계와 가능성 규명에 초점을 맞춘 연구였으며, 그에 따라 정치근대화의 주체인 한국인의 도덕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소홀히 하였고, 한국정치사에 대한 자아성찰적 문제의식에 바탕을 둔 정치철학적 연구의 부재에 따른 불완전성을 비판한다. 김비환은 서구식 자유민주

주의 체제를 통한 정치적 근대화의 추구하고 한국인의 자아가 가지는 성격 사이의 부적합성 혹은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철학적 작업을 요구한다. 그는 전통적인 지역공동체적 유대감과 보편적인 시민의식의 균형을 통해 귀속에의 욕구와 자유에의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다면 이상적일 것이라고 결론짓는다(김비환 1999, 25). 사실 김비환의 의미있는 문제제기가 구체적인 한국정치사 연구를 통한 해결을 추구하거나 그에 대한 새로운 문제제기로 확장되지 않고 사상적 내지는 원론적 수준의 결론으로 마무리된 점은 아쉽다.

양승태(2006; 2011)의 경우 한국정치철학의 과제로서 ‘국가정체성’의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며, 나아가 국가정체성과 정당연구와의 연결고리를 찾으려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변적인 정치철학의 단계로부터 벗어나는 듯 하다. 하지만 그의 시론적 문제제기임을 감안하더라도 기본적인 출발점은 헤겔철학의 방법을 통해서이다. 즉 그는 “인간의 정신세계는 그가 속한 민족이나 국가의 교육, 문화, 도덕, 정치생활 등 사회적 및 역사적 삶 전체를 통해 형성되고 발전한다”라는 헤겔적 사고틀 속에서 한국정치를 접근한다는 점에서 지극히 관념론적이며, 그러한 문제설정은 정치사에 대한 상대적 경시를 분명히 드러낸다(양승태 2011; 2015).¹¹⁾ 양승태는 케임브리지 학파나 개념사 학파에 대해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정치 현실에서 작동하고 드러나는 정치사상에는 사상의 본질적인 성격인 현실초월적 정신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정치사상에 대한 비철학적 연구로는 그것이 현실에서 작동하는 의미 자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현실적 맥락에서만 정치사상을 이해하려는 것은 구체성과 생동감을 줄지는 모르지만 본질적인 정신세계를 이해하지는 못한다고 비판한다.

두 정치사상 전공자들의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문제제기의 수준에 그치면서 정치사에 대한 포괄적 내지는 적극적인 접근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은 지극히 아쉬운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학의 다른 분야에서 정치사에 대한 관심은 최근 새롭게

11) 예를 들어 양승태가 한국정당들 사이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복지문제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은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양승태 2011, 20). 복지 문제에 대해 각 정당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어떠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지, 또한 한국사회의 현실과 복지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과 그것에 접근이 아니라 복지란 개념이 고대 희랍인들에게서 어떻게 이해되었는지부터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원래 복지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함을 강조한다.

이루지고 있다. 주목할만한 점은 한국 사회과학 및 역사학계에서 한국정치사에 대한 개념사적 접근이 최근 활기를 띠고 있다는 점이다. 2007년 이후 한림과학원은 '동아시아 기본 개념의 상호소통 사업'이라는 개념사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결과물을 생산하고 있다. 이 연구 프로젝트의 문제의식은 코젤렉의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일 수 있지만, 역시 한반도에서 근대성의 문제에 대한 천착이다. 동아시아의 서구와의 만남과 서구적 근대의 번역 그리고 주체 등 한반도에서 발생한 전통에서 근대로의 전환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개념사를 통해 포착하고자 한다. 현재 그 결과물로 '만국공법', '국가, 주권', '헌법', '국민, 인민, 시민', '민족, 민족주의', '문명', '제국' '문학', '보수', '경제, 경제학' 등등의 개념사가 출판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사에 대한 시도는 기존의 정치사상사나 학설사의 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은 여전하다. 이 시리즈의 상당수가 '규범적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개념사가 추구하는 '의미의 생산과정'으로서 번역의 과정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다는 점이다(나인호 2014, 102). 몇몇의 책의 구성이 서양에서 개념의 역사와 '본래'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데 많은 양을 할애한 뒤, 그것이 동아시아 특히 한반도에서 '왜곡'되는 과정을 그리려 하고 있고, 다시 '올바른 개념'으로의 정정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근대성의 형성과 관련하여 개념사가 요구하는 것은 "전통 개념의 좌절사를 거쳐 전통과 근대 개념의 복합으로 형성되는 새 개념의 역사"라는 점은 분명하다(하영선 외 2009, 9). 하지만 하영선 등이 저술한 『근대한국의 사회과학개념형성사』의 경우 이러한 문제의식과 더불어 사회사와의 결합의 필요성을 역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시 개념논쟁에의 삼면전에서 완패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나 "문명주도국들의 국제적 개념 전파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라는 평가 등은 개념에 대한 역사적 접근이라기보다는 규범적 접근이 강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하영선 외 2009, 34-35). 사실 19세기 말 독자적인 근대화의 실패 그리고 그에 따른 식민지화의 과정을 개념논쟁에서의 패배로 보는 것은 지나친 관념적 해석이다. 그 실패의 과정은 결국 사회사적, 정치사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며, 그것이 개념사가 사회사 및 정치사와 결합해야 하는 이유이다. 나아가 서구에서의 개념사적 접근과 달리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 개념사적 접근에서 부가적으로 거쳐야 할 단계는 '번역'의 문제에 대한 해명이다. 동아시아에서 전통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개념의 경우 새로운 개념의 창조가 필요하며 그것은 또한 신조어가 가져올 수 있는 언어적 의미 부여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설사 유사한 개념이 존재한다하더라도 서구의 개념과의

절충, 융합, 변이의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개념화의 과정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한림과학원에서 번역하여 출판하고 있는 코젤렉, 브루너, 콘체가 편집한 <개념사 사전> 시리즈의 ‘전쟁’, ‘평화’, ‘지배(Herrschaft)’ 항목의 목차를 검토해 보자. 서문 이후, II장에서는 중세시대 각각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III장에서는 근대초기에서부터 프랑스혁명을 거쳐 개념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리고 결국 독일에서 각각의 개념은 어떠한 의미변화를 거치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IV장에서 전망을 담고 있다. 물론 코젤렉의 개념사의 방법론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지만 그들의 방법론과 연구성도가 시사하는 바는 분명히 크다. 그러한 의미에서 독일의 개념사 학파가 ‘독일적 근대의 특수한 길’을 찾기 위한 작업을 행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서, 동아시아 한반도에서 ‘근대의 특수한 길’에 대해 탐구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우리의 개념사 작업은 우선 전통적으로 존재하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이후 그것과 서구적 개념과의 만남에 대해 서술해야 한다. 이 만남의 과정이 번역의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19세기 말 일본이나 중국으로 통해 서구적 개념이 번역되는 과정 그리고 그것이 한반도에 유입되는 과정을 살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요구되는 작업은 식민지적 근대 형성과정에서 겪게 되는 개념의 변이 과정 그리고 탈식민이후 개념의 변이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근대한국의 사회과학개념 형성사』 I, II권의 각 항목들을 볼 때, 김성배, 강동국의 글은 그러한 틀, 즉 전통적인 한국에서의 개념의 의미, 근대 초기 서구적 개념의 유입시기 일본, 중국에서 번역과정에서의 의미, 그리고 다시 한반도로의 유입과정에서 개념의 변이 등의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반면에 일부 글들의 경우 그 개념의 번역과 변이의 과정이 충분히 서술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중요한 누락의 지점은 개념들 간의 연관성 그리고 그로부터 유추될 수 있는 한반도에서의 근대성의 커다란 윤곽이다. 두 권의 책에서 서술되고 있는 개념들의 변이과정을 통해 과연 우리는 한반도에서의 근대성의 윤곽, 적어도 한반도 근대성의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에 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답이 나올 수 밖에 없다. 독일 개념사 학파의 『역사 기본개념』에서 다루고 있는 총 120개의 개념은 정치, 사회, 경제, 이데올로기, 철학, 역사, 법, 국제정치 등의 분야에 걸쳐서 독일어권 근대 출현의 구조와 변환을 총체적으로 탐색하고 있다(Richter 2002, 84-85). 아직 한국에서 개념사적 연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앞으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물론 현재의 한국 인문사회과학자들에 의한 근대성 및 근대정치 형성에 대한 연구가 전체적으로 코젤렉의 개념사학파가 진행하고 있는 것과 같은 체계적인 작업의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 다만 근대적 개념의 형성과 관련하여 근대적 지식과 담론의 형성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근대적 인쇄매체들을 통한 문화사적 접근을 진행하기도 한다.¹²⁾ 또한 정치사상 연구자들에 의해 해방 이후 한국정치사에 대한 접근을 통해 근대정치가 어떻게 형성되고 변이되는가를 분석하기도 한다. 특히 이데올로기들에 대한 이론적, 철학적 접근을 넘어서 정치사를 경유한 한국정치사상의 이해를 위한 시도들이 확장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연구(서희경 2012), 한국자유주의 연구(문지영 2011), 보수주의 연구(이나미 2001; 2011), 박정희 민족주의에 대한 연구(김보현 2006; 강정인 2015), 시민의 탄생(정상호 2013) 등에서 보이듯이, 한국정치사와 정치사상의 결합은 최근 두드러진 연구의 추세이다. 그리고 그러한 연구들은 실증주의적 역사학적 접근 혹은 단지 사상과 정치사의 결합이라거나 서양정치철학적 개념을 통해 한국정치사를 접근한다는 사실보다는 한국정치사로부터 한국의 정치변동에 주요한 계기가 되는 정치철학적 개념의 형성과 그 의미의 변동을 파악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이 연구들은 서구적 근대 정치철학의 개념이 한국 근대 정치사의 전개 속에서 어떠한 굴곡과 변형을 겪게 되는지, 한국의 근대성 형성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정치철학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연구들은 사상과 정치사의 결합으로서 한국정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정치의 지형을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 즉 현재의 한국정치에 대한 이해로 확장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은 앞서 언급했던 많은 연구방법론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정치학적 탐구는 장기적인 시간의 흐름과 구조의 변화 속에서 작동하는 권력 관계와 정치적인 것의 변화를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12) 인문학자 및 사회과학자들의 참여를 통한 산물로 이화여대 한국문화원(2004)이나 한국문화 연구자에 의한 한국의 근대성 연구로 김현주(2013) 등은 좋은 예이다.

IV. 맺는 말

테일러(Taylor)의 용어를 빌려 ‘근대의 사회적 상상’ 속에서 현재의 우리가 존재한 다하더라도 우리는 근대, 탈근대 그리고 전통의 비동시성의 동시성의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 그러한 점에서 한반도에서 근대성의 형성의 역사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그를 통한 한국적 근대성에 대한 이해 그리고 21세기 한국이 가지고 있는 비동시성의 동시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실마리들을 찾는 지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은 분명하다. 근대의 형성 시점에서 한반도가 부딪혔던 문제들, 특히 가장 중요하게는 식민지 문제는 한반도에서 특수한 근대성을 형성하게끔 하였고, 해방 이후 냉전적 분단은 탈식민화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못하게 하였다. 최근에 탈식민주의에 대한 관심은 단순한 유행 이상으로 우리의 과제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철학적, 역사학적 탐구 작업을 요구한다. 결국 이러한 과제들을 통해 한국의 정치철학의 정체성이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정치철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와 정치철학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의 문제는 동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분리된 문제도 아니다. 그것은 한국의 정치철학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그것을 구성하기 위한 ‘고전읽기’의 과정으로서 필요하다. 그리고 ‘고전’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도 앞서 언급한 다양한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물론 그것이 객관적 진리를 찾기 위한 길로서 고전 읽기일지 아니면 맥락 속의 역사적 텍스트로서 고전읽기일지에 대한 판단은 교사에 게 달려있지만, 적어도 사회과학적 문제의식 즉 공동체에 대한 문제의식과는 분리될 수 없어야 한다. 물론 스키너는 고전적 텍스트들, 도덕, 사회, 정치이론의 텍스트들은 본질적 동일성이 아니라 다양한 실질적인 도덕적 가정들과 정치적 신념들을 밝히는 데 도움을 주며, 그러한 의미에서 현재적인 철학적 중요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처럼 한국의 정치학자들, 특히 정치사상 전공자들이 동서양의 고전들을 읽는 것은 그것이 주는 철학적, 도덕적 중요성과 연관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재 한국 사회에서 유행처럼 불고 있는 인문학 열풍은 또 다른 문제이다.¹³⁾ 물론 그것이 침체한 한국의

13) 한국 대학 - 혹은 대입 전 중고등학교에서부터 - 에서 교양교육 강화의 방법으로 제시되는 고전읽기는 서구의 고전읽기 전통 및 동양사회에서의 전통적인 고전읽기 전통의 복원의 차원일 수 있다. 과학과 진보에 대한 확신과 미국의 번영에 기댄 존 듀이의 실용주의적

인문학에 뭔가 활기를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인문학은 어떻게 그리고 왜 발생하였으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질문할 필요가 있으며, 그로부터 왜 우리가 인문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인문학은 '힐링'을 위해서도 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한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사유 그리고 우리에게 더 좋은 사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 등 지극히 윤리학적(ethical) 문제의식 - 도덕(moral)과는 구별되는 아리스토텔레스적 혹은 스피노자적 윤리학의 의미에서 - 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투고일: 2016년 12월 15일

심사일: 2017년 1월 15일

게재확정일: 2017년 2월 15일

참고문헌

- 강정인. 2015. 『박정희와 한국정치사상』. 서울: 아카넷.
 국순아. 2010. “듀이의 실용주의적 지식개념”, 『철학논총』 61집 3권.
 김기봉. 2008. 『역사란 무엇인가를 넘어서』. 서울: 푸른역사.
 김보현. 2006. 『박정희 정권기 경제개발 - 민족주의와 발전』. 서울: 갈무리.
 김비환. 1999. “전환기 한국사회의 정치철학의 임무: 한국적 민주정치공동체의 존재론적

지식관 및 교육관 - 사변적인 방법을 거부하고 경험적 탐구에 근거한 과학적 방법으로 지식과 행위를 통합하려는 실험적 지식론 - 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허친스(Hutchins)와 애들러(Adler)의 교육학은 인간의 이성적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자 하는 목표 속에서 불변의 진리와 확실성에 대한 갈망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고전중심의 교양교육운동으로 발현되었다(전일균 2005; 국순아 2010; 손승남 2013). 그러한 점에서 한국의 혁신교육에서 존 듀이에 기대는 것은 아이러니이다. 비록 듀이가 직업훈련으로서 교육이라는 사회적 실용성 교육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듀이의 실용주의적 경험주의적 민주주의 교육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듀이의 교육철학과 결합한 역량중심교육이 한국 혁신교육의 중심에 있다(서용선 2012; 서용선 외 2013). 누스baum(Nussbaum 2011) 역시 인문학과 예술을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교양교육이 이윤이 아니라 인간존재 그리고 세계시민으로서의 능력과 공감을 지닐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함을 역설하지만 기본적으로 듀이의 교육관을 지지한다.

- 기초를 찾아서”, 『한국정치학회보』 33집 1호.
- 김현주. 2013. 『사회의 발견』. 서울: 소명출판.
- 김홍우. 1992. “감수자 서문”, 『서양정치철학사』. 레오 스트라우스, 조셉 크랍시 엮음, 김영수 외 역. 서울: 인간사랑.
- 나인호. 2011. 『개념사란 무엇인가』. 서울: 역사비평사.
- _____. 2014. “‘한국개념사총서’의 이론적 감수성”, 『개념과 소통』 13호.
- 문지영. 2011. 『지배와 저항 - 한국 자유주의의 두 얼굴』. 서울: 후마니타스.
- 박성우. 2014. “막스 베버의 사실·가치 구분에 대한 레오 스트라우스 비판의 정치철학적 의의”, 『한독사회과학논총』 24권 3호.
- 손승남. 2013. “‘위대한 저서(The Great Books)’ 프로그램을 토대로 본 우리나라 대학 인문고전교육의 방향 탐색”, 『교양교육연구』 7권 4호.
- 서용선. 2012. 『혁신교육 존 듀이에게 묻다』. 서울: 살림터.
- _____. 외 2013. 『혁신교육 미래를 말한다』. 서울: 맘에드림.
- 서희경. 2012.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 서울: 창비.
- 양승태. 2006. “국가정체성 문제와 정치학 연구: 무엇을, 어떻게 - 하나의 거대 연구 기획을 위한 방법론적 시론”, 『한국정치학회보』 40집 5호.
- _____. 2011. “국가정체성 문제와 한국의 정당: 거대 담론의 출발을 위한 정치철학적 시론”, 『한국정치학회보』 45집 4호.
- _____. 2015. “정치사상을 연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 헤겔의 ‘철학으로서의 철학사’ 이념에 대한 재성찰”, 한국정치사상학회 발표문.
- 이나미. 2001. 『한국 자유주의의 기원』. 서울: 책세상.
- _____. 2011. 『한국의 보수와 수구』. 서울: 지성사.
- 이유선. 2006. 『듀이 & 로터: 미국의 철학적 유산 프래그머티즘』. 서울: 김영사.
- 이화여대 한국문화원. 2004. 『근대 계몽기 지식개념의 수용과 그 변용』. 서울: 소명출판.
- 전일균. 2005. “자유교양론의 현대적 의미 - 허친스의 교양교육론을 중심으로”, 『인문연구』 49집.
- 정상호. 2013. 『시민의 탄생과 진화』. 서울: 한림대출판부.
- 하영선 외. 2009. 『근대 사회과학 개념형성사』. 서울: 창비.
- _____. 손열 엮음. 2012. 『근대 사회과학 개념형성사』 II. 서울: 창비.
- 함규진. 2014. “레오 스트라우스: 철학자와 정치인의 갈림길에서, ‘책의 목소리를 들어라’”. 『인물과 사상』 4.
- Caillé, Alain. 1993. “Sciences sociales et philosophie politique,” La démocratie à l’oeuvre: Autour de Claude Lefort, Claude Habib et Claude Mouchard, dir., Paris:

Esprit.

- Collini, S. 1979. *Liberalism and Sociology*. Cambridge: Cambridge UP.
- Favre, P. 1989. *Naissance de la science politique en France(1870-1914)*. Paris: Fayard.
- Foucault, Michel. 1993. 『말의 질서』. 이정우 역. 서울: 새길.
- Jay, Martin. 1986. “지성사는 언어학적 전회를 시도해야 할 것인가”, Lacapra D. & Kaplan, S. L. ed. 1986. 『현대유럽지성사』. 이광래 외 역. 원주: 강원대출판부.
- Kant, Immanuel. 2012. 『학부들의 논쟁』. 오진석 역. 서울: 도서출판b.
- Koselleck, R. 1998. 『지나간 미래』. 한철 역. 서울: 문학동네.
- Lefort, C. 2015. *Essai sur le politique, 19-20e siècle(1986)*. Paris: Seuil. 홍태영 역. 『정치적 인 것에 대한 시론』, 서울: 그린비.
- Lepenies, W. 1985. *Between Literature and Science: the rise of Sociology*. Cambridge: Cambridge UP.
- Logue, W. 1983. *From Philosophy to sociology, The evolution of french liberalism, 1870~1914*. Illinois: Nor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 Nussbaum, Martha, C. 2011. 『공부를 넘어 교육으로』. 우석영 역. 서울: 궁리.
- Ricoeur, Paul. 2003. 『해석학과 인문사회과학』. 윤철호 역. 서울: 서광사.
- Rosanvallon, Pierre. 1986. “Pour une histoire conceptuelle du politique.” *Revue de synthèse*, No. 1-2, janvier-juin,
_____. 2002. *Pour une histoire conceptuelle du politique*. Leçon inaugurale au Collège de France faite le jeudi 28 mars.
- Raynaud, Ph. 1996. “Philosophie politique.” Ph. Raynaud et S. Rials(dir.). *Dictionnaire de philosophie politique*. Paris: PUF.
- Richter, Melvin, 2010. 『정치·사회적 개념의 역사』. 송승철, 김용수 역. 서울: 소화.
- Skinner, Quentin. 2007. 『퀸틴스키너의 자유주의 이전의 자유』. 조승래 역. 서울: 푸른역사.
_____. 2004. 『근대정치사상의 토대』. 박동천 역. 서울: 한길사.
_____. 2012. 『역사를 읽는 방법』. 황정아, 김용수 역. 서울: 돌베개.
- Strauss, Leo. 2001. 『자연권과 역사』. 홍원표 역. 서울: 인간사랑.
_____. 2002. 『정치철학이란 무엇인가』. 양승태 역. 서울: 인간사랑.
- Tribe, K. 1988. *Governing Economy: The reformation of german economic discours, 1750-1840*. Cambridge: Cambridge UP.
_____. 1995. *Strategies of Economic order*. Cambridge: Cambridge UP.

ABSTRACT

‘History’ and ‘Philosophy’ in the political studies: An Essay on How to study the Korean Political Philosophy

Taiyoung Hong | Korean National Defense University

This article examines the four principal streams of political philosophy in the late 20th century which treat the problems of relation between political philosophy and history: the political philosophy of Leo Strauss in the Chicago school, that of Q. Skinner in the Cambridge School, that of R. Koselleck in the conceptual history school and that of C. Lefort and P. Rosanvallon in the Annales. Especially, we study what is the political philosophy, the relation between philosophy and history, and the role of political philosophy, which the each school suggest, examining the definition, objects of research and methodology of their political philosophy. In comparing these schools, we draw meanings to the Korean political philosophy, that is, what would be done the Korean political philosophy, what is the tasks of Korean political philosophy. In definitely, the Korean political philosophy should resolve the problems of the formation of modernity in Korea, which is to trace the particularity of Korean modernity.

Keywords: political philosophy, history, modernity, Leo Strauss, Koselleck, Skinner, Lefort, Rosanvallon